

2023. 8. 8.(화) 조간용

이 보도자료는 2023년 8월 7일 오전 11:15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SEUL BIENNALE  
OF ARCHITECTURE  
AND URBANISM

# 보도자료

담당부서 : 주택정책실 건축기획과

건축기획과장	박순규	2133-7090
도시건축교류팀장	박경선	2133-7632
누리집	seoulbiennale.org/2023/overview	

사진없음  사진있음  매수 : 7매

## '지속가능한 미래 도시의 비전' 제4회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D-25

- 서울시, 제4회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전시별 주제 및 참여 큐레이터 8.7.(월) 사전 공개
- 서울을 탐구 대상으로 전 세계 참여자들과 서울에 관해 다층적인 논의를 나누는 자리
- '땅의 도시, 땅의 건축'을 주제로 친환경 고밀도시 서울에 대한 마스터플랜 제시
- 10.29.(일)까지 열린송현녹지광장·서울도시건축전시관·서울시청(시민청)에서 열려

지속가능한 미래 도시의 비전에 대해 논의하는 '제4회 서울도시건축 비엔날레(이하 서울비엔날레)'가 개막 20여 일을 앞두고 최종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서울시는 서울비엔날레 총감독인 조병수 건축가를 필두로 전시기획에 참여한 총 8인의 큐레이터와 전시별 주제를 7일(월) 사전 공개했다.

○ 서울비엔날레는 도시문제에 대한 다양한 해법을 고민하고 세계 여러 도시와 건축 분야 문화를 교류하는 서울시 주최 국제행사다. 올해는 9.1(금)~10.29(일) 총 59일 간 '땅의 도시, 땅의 건축:

산길, 물길, 바람길의 도시, 서울의 100년 후를 그리다'를 주제로 열린송현녹지광장, 서울도시건축전시관, 서울시청 시민청 일대에서 열린다.

-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방식과 도시의 메커니즘에 대해 고민하는 제4회 서울비엔날레 전시는 주제에 대한 이해를 돕는 ▲주제전을 중심으로 ▲서울100년 마스터플랜전 ▲게스트시티전 ▲글로벌 스튜디오 ▲현장프로젝트전 등으로 나뉘어 선보인다.
- '땅의 도시, 땅의 건축'을 주제로 조병수 총감독과 한국건축가협회 회장을 역임 중인 경기대학교 건축학과 천의영 교수가 공동 큐레이터로 진행하는 주제전은 생태, 지형, 조망을 키워드로 땅의 건축에 관한 다양한 담론과 프로젝트를 소개한다. 시민을 대상으로 한 열린송현녹지광장의 체험형 주제관(하늘소, 땅소)과 서울도시건축전시관의 인터랙티브 플랫폼을 통한 서울 2050년 미래상의 연구를 담은 전문가 대상의 전시로 구성된다.
- <서울 그린 네트워크>라는 제목으로 선보이는 서울 100년 마스터플랜전은 100년 후 서울의 친환경 고밀도시를 그리는 유형별 마스터플랜을 소개한다. 조병수 총감독의 큐레이션에 따라 서울이 가진 그린 네트워크의 확장 가능성을 모아 미래 녹화도시의 지표를 마련하고자 했다. 국제공모전을 통해 선정된 40팀의 유형별 마스터플랜 및 국내외 우수 건축상 수상자 스노헤타, MVRDV, 조민석, 프란시스코 레이바 등으로 구성된 초청작가 14팀의 다양한 연구 성과물을 전시한다.
- 임진영 오픈하우스 대표와 연세대학교 건축공학과 염상훈 교수가 공동 큐레이터로 진행 중인 게스트시티전은 <패러럴 그라운드

(Parallel Grounds))를 주제로 세계 도시공간의 고밀도화 및 다층화 사례를 통해 도시의 주요 공공 프로젝트를 소개하는 전시이다. 독일 함부르크, 미국 뉴욕, 스위스 바젤 등 세계 29개 도시의 프로젝트와 도미니크 페로, 위르겐 마이어, 헤르초크 앤 드 뢰롱 등 해외 건축상 수상자가 참여한 도시의 주요 공공 프로젝트를 소개한다.

- 덴마크 오르후스 건축학교 레이프 호이펠트 한센(Lief Høgfelt Hansen) 교수가 큐레이터를 맡은 글로벌 스튜디오 〈메가시티의 연결(Bridging the Megacity)〉은 국내외 31개 대학이 참여한다. 보행자 중심의 미래 서울 마스터플랜과 관련된 친환경 한강다리 및 세계 친환경 메가시티의 연구 전시로 열린송현녹지광장 하늘소 하부 공간에서 참여 대학생들의 영상, 이미지 등 형태로 구현된다.
- 현장프로젝트전 〈체험적 노드: 수집된 감각〉은 열린송현녹지광장의 장소성을 인식하기 위한 건축적, 감각적 장치를 선보여 시민들이 쉽고 재미있게 서울비엔날레의 주제를 이해하고 체험하는 기회를 제공한다. 김치앤칩스, 플라스틱 판타스틱, 페조 본 에릭 사우센 등 다양한 국적의 작가진이 참여한 현장프로젝트전의 큐레이터는 다이아거날 씨츠 건축사무소 김사라 대표가 맡았다.

□ 제4회 서울비엔날레는 모두 무료 전시로 진행되며, 제15회 서울건축문화제, 제15회 서울국제건축 영화제, 메타버스 전시, 다양한 시민참여프로그램 등 다채로운 연계 전시 및 행사도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

- 각각의 전시 및 프로그램은 열린송현녹지광장, 서울도시건축전시

관, 서울시청 시민청 및 서울광장 등지에서 펼쳐지게 된다. 사전 예약이 필요한 프로그램의 경우 서울시 공공서비스예약(yeyak.seoul.go.kr)을 통해 날짜와 시간을 예약한 후 참여할 수 있다.

- 제4회 서울비엔날레의 각 전시 및 연계 프로그램에 대한 보다 자세한 정보는 이달 중 최종(2차) 공개될 누리집(2023.seoulbiennale.org) 및 인스타그램(@seoulbiennale)에서 확인할 수 있다.

붙임1. 관련 이미지(총감독, 큐레이터 및 전시 대표 이미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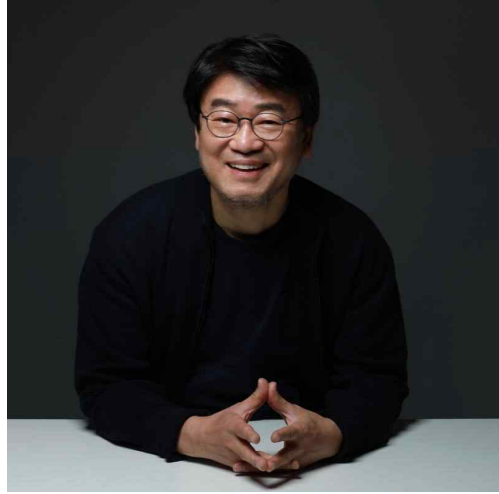
2. 제4회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개요

〈첨부 1〉

## 관련 이미지



조병수 총감독 ©김재경



천의영 큐레이터 ©천의영



임진영 큐레이터 ©임진영



염상훈 큐레이터 ©염상훈



김사라 큐레이터 ©김사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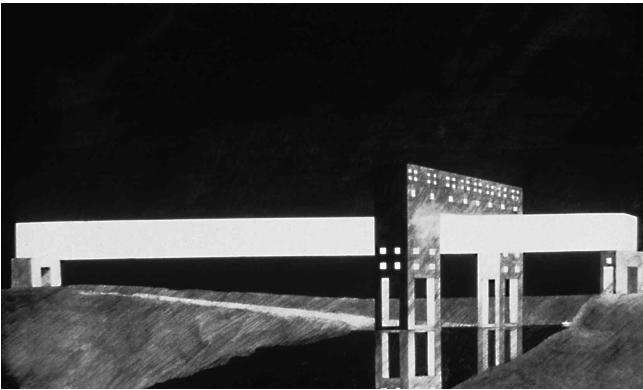
레이프 호이펠트 한센 큐레이터 ©Lief Høgfelt Hanse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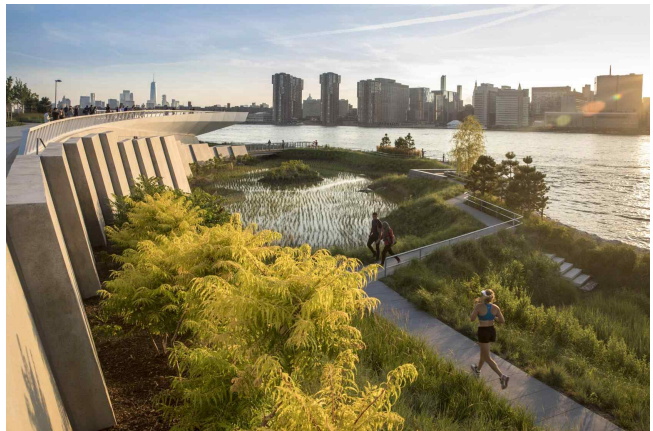
주제전이 펼쳐질 열린송헌녹지광장 조감도



서울 100년 마스터플랜전 '서울 그린 네트워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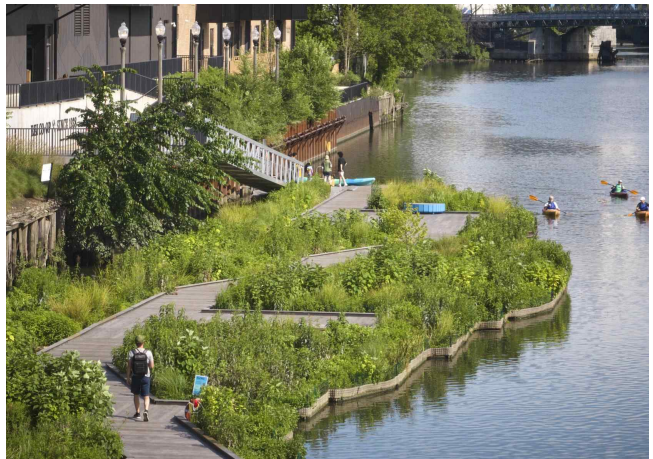
게스트시티전 참여작품  
Gymnasium Bridge, Steven Holl Architects



게스트시티전 참여작품  
Hunter's Point South Park Phase II, WeissManfredi,  
David Lloyd



게스트시티전 참여작품  
Miyashita Park, Nikken Sekai, Koji Horiuchi



게스트시티전 참여작품  
Wild Mile River Restoration in Chicago, SOM+Urban  
Rivers, Dave Burk

〈첨부2〉

## 제4회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개요

행 사 명	제4회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일 정	2023.9.1.(금) ~ 10.29.(일)
장 소	열린송현녹지광장, 서울도시건축전시관, 서울시청 시민청 및 주변 일대
주최·주관	서울특별시
개 막 식	(일시) 2023.9.1.(금) 18:30-20:00 (장소) 열린송현녹지광장
전 시	주제전 (주제) 땅의 도시, 땅의 건축 (기획) 조병수 총감독 (장소) 열린송현녹지광장, 서울도시건축전시관
	서울 100년 마스터플랜전 (주제) 서울 그린 네트워크 (기획) 조병수 총감독, 천의영 큐레이터 (장소) 서울도시건축전시관
	게스트시티전 (주제) 패러럴 그라운드 (기획) 염상훈 큐레이터, 임진영 큐레이터 (장소) 서울도시건축전시관, 시민청
	글로벌 스튜디오 (주제) 메가시티의 연결 (기획) Leif Høgfelt Hansen 큐레이터 (장소) 열린송현녹지광장
	현장프로젝트 (주제) 체험적 노드: 수집된 감각 (기획) 김사라 큐레이터 (장소) 열린송현녹지광장
홈페이지	<a href="http://2023.seoulbiennale.org/">http://2023.seoulbiennale.org/</a>